

WEBVTT

00:00:09.750 --> 00:00:11.464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564 --> 00:00:12.745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845 --> 00:00:14.974

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
실전 다지기입니다.

00:00:15.074 --> 00:00:18.607

이제 운문에 대해서
네 가지의 내용을 배웠고요.

00:00:18.707 --> 00:00:21.641

네 가지 배웠고, 그다음에 실전
다지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

00:00:21.741 --> 00:00:25.250

실전 다지기가 총 6개가 있는데,
2개씩 좀 잘라봤습니다.

00:00:25.350 --> 00:00:27.270

2개씩 잘라서 내용 정리할게요.

00:00:27.370 --> 00:00:30.816

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시면
신경향 문제입니다.

00:00:30.916 --> 00:00:34.150

최근의 경향의 문제가 문학
이론이 하나 나오죠.

00:00:34.250 --> 00:00:37.796

문학 이론이 하나 나오고, 거기
어울리는 작품이 두 개 나오고.

00:00:37.896 --> 00:00:39.174

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.

00:00:39.274 --> 00:00:41.189

그리고 문항 수가 상당히
많이 나오는데.

00:00:41.289 --> 00:00:44.448

우리 문제집에서는 참고로
3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

00:00:44.548 --> 00:00:47.177

문학 이론의 내용도 그렇게
어렵지는 않고요.

00:00:47.277 --> 00:00:49.724

나오는 내용이 도산십이곡하고
장진주사인데.

00:00:49.824 --> 00:00:52.835

이것도 좀 익숙한 작품들이라고

저는 생각하지만,

00:00:52.935 --> 00:00:54.536

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

00:00:54.636 --> 00:00:56.826

그럼 우선 첫 번째 1번

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00:56.926 --> 00:01:00.772

1번 문제 유형을 보시면 (가)를 바탕으로
(나)와 (다)를 감상한 것으로.

00:01:00.872 --> 00:01:03.177

이런 문제 100% 무조건

나오는 문제예요.

00:01:03.277 --> 00:01:07.885

뭐냐면 (가)의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
해서 (나)와 (다)의 이걸 바탕으로.

00:01:07.985 --> 00:01:11.158

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

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

00:01:11.258 --> 00:01:14.286

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뭘 했었냐면
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

00:01:14.386 --> 00:01:15.671

감상하는 거였잖아요.

00:01:15.771 --> 00:01:18.258

그 외부 자료가 우리가
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.

00:01:18.358 --> 00:01:21.063

그 보기 내용이 좀 더
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1:21.163 --> 00:01:23.837

그게 바로 (가)처럼 문학
이론으로 나오는 거다.

00:01:23.937 --> 00:01:25.450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

00:01:25.550 --> 00:01:27.485

그다음에 2번은 (나)와
(다)의 공통점으로

00:01:27.585 --> 00:01:29.116

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.

00:01:29.216 --> 00:01:31.942

이거는 뭘 찾는 거냐면 여러분,
표현상 특징이 비교해서

00:01:32.042 --> 00:01:35.379

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
표현상 특징을 확인해 보라.

00:01:35.479 --> 00:01:36.625
이런 문제였죠.

00:01:36.725 --> 00:01:40.211
3번은 (다)를 보기와 같이
수정했을 때 수정하기 위한

00:01:40.311 --> 00:01:42.010
전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00:01:42.110 --> 00:01:43.049
무슨 뜻입니까?

00:01:43.149 --> 00:01:46.719
(다) 작품과 보기를 비교해서 무엇이
달라졌는지 그거 한번 비교해볼래?

00:01:46.819 --> 00:01:47.944
이런 문제 유형입니다.

00:01:48.044 --> 00:01:51.624
2번, 3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
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01:51.724 --> 00:01:55.456
그러면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

00:01:55.556 --> 00:01:59.661
조선 전기 시조는, 조선 전기
시조는 이런 내용이에요.

00:01:59.761 --> 00:02:01.216
이쪽으로 잠깐 와보실까요?

00:02:01.316 --> 00:02:03.407
배경 지식을 선생님이
간단하게 얘기하면

00:02:03.507 --> 00:02:07.091
여러분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.

00:02:07.191 --> 00:02:11.679
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지금 전기를
살고 있나요, 후기를 살고 있나요?

00:02:11.779 --> 00:02:14.629
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,
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.

00:02:14.729 --> 00:02:16.633
모르죠, 당연히 모르죠.

00:02:16.733 --> 00:02:19.146
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망해요.

00:02:19.246 --> 00:02:20.632
그러면 우리는 후기를 산 거고.

00:02:20.732 --> 00:02:24.142
만약에 1000년 뒤에 망했다

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산 거예요.

00:02:24.242 --> 00:02:29.622

그러면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?

00:02:29.722 --> 00:02:30.679

임진왜란이죠?

00:02:30.779 --> 00:02:34.155

그럼 임진왜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기인지 후기인지 알까요?

00:02:34.255 --> 00:02:37.123

임진왜란 겪었던
서민들이 조금만 힘내,

00:02:37.223 --> 00:02:39.864

조금만 있으면 후기가 시작된단
말이야, 조금만 더 힘내.

00:02:39.964 --> 00:02:41.656

이렇게 얘기하지는
않을 거 아니에요.

00:02:41.756 --> 00:02:44.316

그러면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
기준을 누가 만드는 거죠?

00:02:44.416 --> 00:02:48.335

그렇죠, 후대 역사학자들이 만든다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2:48.435 --> 00:02:51.633

그럼 후대 역사학자들이
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

00:02:51.733 --> 00:02:55.457

두 개가 특징적인 차이가
있으니까 이제 전기와 후기를

00:02:55.557 --> 00:02:56.945

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02:57.045 --> 00:03:00.002

전기라고 하면 이렇게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3:00.102 --> 00:03:02.526

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3:02.626 --> 00:03:05.407

안정기라고 생각하면 되고,
후기는 뭔가 변화가 있다.

00:03:05.507 --> 00:03:06.702
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3:06.802 --> 00:03:11.128

전쟁이라고 하는, 임진왜란이라고
하는 전쟁을 계기로 해서

00:03:11.228 --> 00:03:15.526

전기는 당연히 이제 유교적인
문화가 안정적이었을 거고,

00:03:15.626 --> 00:03:18.768

그다음에 후기는 양반들이
막 도망가고 이랬잖아요.

00:03:18.868 --> 00:03:21.498

이미 선조 임금도 도망가고
그랬는데요, 뭐.

00:03:21.598 --> 00:03:24.099

그러니까 당연히 양반의 권위가
무너질 수밖에 없고,

00:03:24.199 --> 00:03:26.150

서민 의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.

00:03:26.250 --> 00:03:29.506

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
쪽 설명이 될 겁니다.

00:03:29.606 --> 00:03:31.780

문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니까
한번 보겠습니다.

00:03:31.880 --> 00:03:37.443

조선 전기 시조는 성종 이후 정국이
안정되고, 안정된다고 얘기했죠.

00:03:37.543 --> 00:03:40.394

왕조의 기틀이 잡힌 뒤로
유교 사상과 함께,

00:03:40.494 --> 00:03:44.090

유교 사상이 있죠, 당연히.

00:03:44.190 --> 00:03:46.923

그다음에 도가의 무위자연에
영향을 받아서.

00:03:47.023 --> 00:03:48.952

무위자연 무슨 뜻입니까?

00:03:49.052 --> 00:03:51.257

무위자연은 아무것도
하지 않아도 된다.

00:03:51.357 --> 00:03:54.459

무위자연, 아무것도 하지
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야.

00:03:54.559 --> 00:03:56.878

뭔가 인위적인 거 하지
마라 이런 뜻입니다.

00:03:56.978 --> 00:03:58.448

게을러라 이런 뜻 아닙니다.

00:03:58.548 --> 00:04:01.141

무위자연에 영향을 받아 자연
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

00:04:01.241 --> 00:04:03.659

노래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.

00:04:03.759 --> 00:04:08.247

유유자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
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4:08.347 --> 00:04:12.242

이 시기 시조의 내용은 자연
친화와 안빈낙도를 노래한 것.

00:04:12.342 --> 00:04:13.838

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?

00:04:13.938 --> 00:04:16.572

여기 나오는 (나) 작품과
(다) 작품은 자연 친화,

00:04:16.672 --> 00:04:19.274

뭔가 안빈낙도에 관련된
내용이 있을 것이다.

00:04:19.374 --> 00:04:22.652

또는 조선 후기 내용이라면
아무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

00:04:22.752 --> 00:04:24.581

여기 (나) 작품과 (다)
작품에 있을 것이다.

00:04:24.681 --> 00:04:26.028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04:26.128 --> 00:04:29.093

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 같은
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4:29.193 --> 00:04:33.657

이 시기의 시조의 내용은 자연
친화와 안빈낙도를 노래한 것,

00:04:33.757 --> 00:04:37.270

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노래한
것,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

00:04:37.370 --> 00:04:40.653

마음을 노래한 것, 적막과
고독의 서정을 노래한 것.

00:04:40.753 --> 00:04:44.163

자연 속에서 학문 정진의 흥취를
노래한 것 등이 있다.

00:04:44.263 --> 00:04:49.319

학문 정진의 흥취의 노래한
것 등이 있다는 거죠.

00:04:49.419 --> 00:04:52.527

그럼 여기 나오는 (나) 작품과
(다) 작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

00:04:52.627 --> 00:04:53.864

조금 이따 보셔야 됩니다.

00:04:53.964 --> 00:04:56.569

특히 이 시기는 정계가
혼란스러워지면서,

00:04:56.669 --> 00:05:00.751

이 시기가 언제인데 혼란스러워졌대?

00:05:00.851 --> 00:05:02.018

잠깐만요.

00:05:02.118 --> 00:05:04.565

맞네요, 특히 이 시기는
정계가 혼란스러워지면서

00:05:04.665 --> 00:05:08.282

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과
벗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는데,

00:05:08.382 --> 00:05:11.621

이처럼 관직을 떠난 가객들이,
가객은 노래하는 사람들,

00:05:11.721 --> 00:05:13.549

시 짓는 사람들입니다.

00:05:13.649 --> 00:05:15.794

자연에 파묻혀 강호의
아름다움을 노래하고

00:05:15.894 --> 00:05:18.272

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
작품을 창작하였다.

00:05:18.372 --> 00:05:21.275

이렇게 시조의 영역이 확대되는
과정에서 뚜렷한 흐름이

00:05:21.375 --> 00:05:25.211

형성되었는데, 그것은 다름 아닌
영남 가단과 호남 가단이 있었대요.

00:05:25.311 --> 00:05:30.284

영남 지방, 이때부터 영호남이 지역
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.

00:05:30.384 --> 00:05:33.035

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
것 중의 하나가 영남, 호남

00:05:33.135 --> 00:05:34.860

이런 지역 감정 아니겠습니까?

00:05:34.960 --> 00:05:38.788

지역 감정은 없어지겠죠.

00:05:38.888 --> 00:05:40.114
없어져야 되겠죠.

00:05:40.214 --> 00:05:41.641
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
해서 미안합니다.

00:05:41.741 --> 00:05:45.608
아무튼 이때도 영남 가단과 호남
가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나 봐요.

00:05:45.708 --> 00:05:48.510
영남 가단의 대표적인
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으로는

00:05:48.610 --> 00:05:53.042
삼강오륜을 생각하며, 삼강오륜이
뭐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이죠.

00:05:53.142 --> 00:05:56.015
삼강오륜을 생각하며
지은 주세붕의 오륜가,

00:05:56.115 --> 00:05:59.607
인격 수양 및 학문 정진을
권유한 이황의 도산십이곡.

00:05:59.707 --> 00:06:01.484
(나) 작품입니다, 도산십이곡.

00:06:01.584 --> 00:06:04.065
어부가 되어 자연에 묻혀
사는 즐거움을 노래한

00:06:04.165 --> 00:06:06.419
이현보의 어부가 등이 있습니다.

00:06:06.519 --> 00:06:09.037
한편 호남 가단을
대표하는 작가로는 송순,

00:06:09.137 --> 00:06:11.153
면앙정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

00:06:11.253 --> 00:06:12.908
김인후, 유명하지는 않고요.

00:06:13.008 --> 00:06:15.807
김성원과 정철인데, 이 두
사람은 친척 관계입니다.

00:06:15.907 --> 00:06:21.532
성산별곡이라는 작품에서 식영정이라는
정자를 찾아갔는데, 정철이.

00:06:21.632 --> 00:06:24.116
그 주인이 바로
김성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.

00:06:24.216 --> 00:06:27.763

아무튼 호남 가단의 작가들은 풍류를
즐기는 삶으로 기울었는데,

00:06:27.863 --> 00:06:30.936
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가는
정철이라고 할 수 있다.

00:06:31.036 --> 00:06:33.491
정철이 문학가로 진짜
엄청납니다, 여러분.

00:06:33.591 --> 00:06:36.294
이러한 모습은 그의 작품
장진주사에서, 나왔죠.

00:06:36.394 --> 00:06:37.773
장진주사 나왔죠.

00:06:37.873 --> 00:06:41.193
잘 드러나는데 이 작품은 정철의
호방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

00:06:41.293 --> 00:06:42.408
권주가에 해당한다.

00:06:42.508 --> 00:06:44.216
권주가에 대한 설명이
좀 있으면 좋겠는데.

00:06:44.316 --> 00:06:47.125
권주가는 술을 권하는
노래 이런 뜻입니다.

00:06:47.225 --> 00:06:50.211
장진주사라고 하면 술을
권하는 노래예요.

00:06:50.311 --> 00:06:53.765
그러면 (나) 작품은
뭐냐면 도산십이곡이니까

00:06:53.865 --> 00:06:56.125
이거는 영남 가단에 해당하는 거고.

00:06:56.225 --> 00:07:00.229
자연 친화도 있을 것이고,
그런 내용들 보면 되겠고.

00:07:00.329 --> 00:07:05.107
그다음에 이황은 인격 수양을 하고
학문 수양을 권유하는 내용이

00:07:05.207 --> 00:07:07.028
여기 어디 있을 것 같고, 그렇죠?

00:07:07.128 --> 00:07:10.426
(다) 작품은 장진주사라고 해서
권주사, 술을 권하는 노래다.

00:07:10.526 --> 00:07:12.141
이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.

00:07:12.241 --> 00:07:13.266

가볼게요.

00:07:13.366 --> 00:07:16.926

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려.

00:07:17.026 --> 00:07:20.145

1곡부터 11곡, 전체

12곡까지 있습니다.

00:07:20.245 --> 00:07:21.792

그래서 12곡이잖아요, 그렇지?

00:07:21.892 --> 00:07:23.393

이런들 엇더하며 더런들,

저런들 엇더하료.

00:07:23.493 --> 00:07:25.836

해석할 수 있죠, 여러분?

00:07:25.936 --> 00:07:28.572

이런들 어떻습니까,

저런들 어떻습니까?

00:07:28.672 --> 00:07:36.049

이런 걸 뭐라고 하나면 여러분,

달관적 자세라고 합니다.

00:07:36.149 --> 00:07:37.437

달관적 자세.

00:07:37.537 --> 00:07:40.497

이래도 괜찮고, 저래도

괜찮아 이런 뜻입니다.

00:07:40.597 --> 00:07:43.478

달관적 자세라고 합니다.

00:07:43.578 --> 00:07:45.133

뭐 어때 상관없어.

00:07:45.233 --> 00:07:47.702

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,

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.

00:07:47.802 --> 00:07:49.856

달관적 자세입니다.

00:07:49.956 --> 00:07:53.654

초야우생이, 초야우생 이렇게

되어 있는데, 애들아.

00:07:53.754 --> 00:07:56.108

여러분, 밑에 한자

이거 보지 말고요.

00:07:56.208 --> 00:07:57.645

아는 한자 한번 불러 볼까?

00:07:57.745 --> 00:07:58.883

초 자 알 수 있지 않을까?

00:07:58.983 --> 00:08:00.083

초 자가 무슨 초 자야?

00:08:00.183 --> 00:08:01.226

그렇죠, 자연.

00:08:01.326 --> 00:08:03.431

즉, 풀이라는 뜻이니까 이견
자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8:03.531 --> 00:08:04.954

초야우생입니다.

00:08:05.054 --> 00:08:06.228

우생은 뭐죠?

00:08:06.328 --> 00:08:07.877

어리석은 사람, 이런 뜻입니다.

00:08:07.977 --> 00:08:10.833

그러면 선생님, 어리석은
사람이니까 부정적인 사람인가요?

00:08:10.933 --> 00:08:12.961

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왜?

00:08:13.061 --> 00:08:16.639

자연에 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인
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8:16.739 --> 00:08:20.002

초야우생, 즉 다시 말하면
자연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

00:08:20.102 --> 00:08:24.809

화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
표현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8:24.909 --> 00:08:26.581

초야우생이 이리타 엇더하료.

00:08:26.681 --> 00:08:29.651

이렇게 살면 어때,
괜찮아 이런 뜻이에요.

00:08:29.751 --> 00:08:33.273

하물며 천석고황이라는 단어는
아주 유명한 한자성어입니다.

00:08:33.373 --> 00:08:36.352

자연을 사랑하는 병, 이런 뜻이죠.

00:08:36.452 --> 00:08:40.346

천석고황을 고터, 고쳐서
므슴하료, 무엇 하겠습니까?

00:08:40.446 --> 00:08:41.972

고칠 필요가 있다, 없다?

00:08:42.072 --> 00:08:43.970

고칠 필요가 절대 없다,
이런 뜻입니다.

00:08:44.070 --> 00:08:46.004

자연 친화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.

00:08:46.104 --> 00:08:48.214

1수부터 6수까지는.

00:08:48.314 --> 00:08:49.618

미리 설명할까요?

00:08:49.718 --> 00:08:52.629

도산십이곡이라는 작품은
1수부터 6수까지는

00:08:52.729 --> 00:08:59.076

언지라고 얘기해서, 언지라고 해서
자연 친화의 노래가 나타나요.

00:08:59.176 --> 00:09:04.045

7수부터 12수까지가 언학이라고
해서 학문 수양이 나타나죠.

00:09:04.145 --> 00:09:08.538

특히 11곡은 어마무시하게
정말 중요한 작품입니다.

00:09:08.638 --> 00:09:10.891

왜? 딱 보세요,
한번 읽어 보세요.

00:09:10.991 --> 00:09:13.402

읽어 보시면 학문에 대한
내용이 전혀 안 나오죠.

00:09:13.502 --> 00:09:15.033

그러나 학문 수양입니다.

00:09:15.133 --> 00:09:16.013

볼게요.

00:09:16.113 --> 00:09:20.730

청산은 엇데하야, 어찌하여
만고에 푸르르며,

00:09:20.830 --> 00:09:22.496

오랜 세월 동안 푸르르며.

00:09:22.596 --> 00:09:24.069

만고, 오랜 세월 동안 푸르르며.

00:09:24.169 --> 00:09:28.935

유수는 엇데하야, 어찌하여
주야에 굶디 아니난가.

00:09:29.035 --> 00:09:32.868

주야에, 밤낮으로 그치지
아니한가, 이런 뜻입니다.

00:09:32.968 --> 00:09:34.494

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.

00:09:34.594 --> 00:09:36.434

청산은 어찌하여, 유수 어찌하여.

00:09:36.534 --> 00:09:37.887

청산은 변하지 않아요, 불변성.

00:09:37.987 --> 00:09:40.133

유수도 역시 불변성이죠.

00:09:40.233 --> 00:09:42.215

유수도 역시 불변성입니다.

00:09:42.315 --> 00:09:44.695

우리도 그티디 마라, 그치지 마라.

00:09:44.795 --> 00:09:46.991

만고상청 하리라.

00:09:47.091 --> 00:09:50.386

만고상청은 오랜 세월 동안
푸르겠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9:50.486 --> 00:09:52.910

무슨 얘기냐면 오랜 세월
동안 푸르겠다는 얘기는

00:09:53.010 --> 00:09:57.507

변함없이, 변치 않고 자연
친화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.

00:09:57.607 --> 00:09:58.533

아시겠죠?

00:09:58.633 --> 00:09:59.684

자연 친화 하겠다.

00:09:59.784 --> 00:10:01.573

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
건 초, 풀이 나왔어요.

00:10:01.673 --> 00:10:04.401

그러면 자연 친화다, 이렇게
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10:04.501 --> 00:10:06.524

참고로 제가 이거
하나 설명드릴까요?

00:10:06.624 --> 00:10:08.206

이쪽으로 와볼게요.

00:10:08.306 --> 00:10:11.669

우리가 이제 고전에서 애들아,
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

00:10:11.769 --> 00:10:16.047

자연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, 그다음에
대립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

00:10:16.147 --> 00:10:18.252
속세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.

00:10:18.352 --> 00:10:20.128
그러면 여러분, 이렇게
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10:20.228 --> 00:10:22.420
여러분 혹시 대중가요 이런
거 좋아합니까, 여러분?

00:10:22.520 --> 00:10:27.374
요새 나오는 대중가요들의 거의
70, 80% 이상의 주제가

00:10:27.474 --> 00:10:29.572
바로 뭐냐면 사랑과 이별이죠.

00:10:29.672 --> 00:10:31.284
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.

00:10:31.384 --> 00:10:35.775
방탄소년단이 얘기하는, 그
노래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하고

00:10:35.875 --> 00:10:37.891
또 누구냐?

00:10:37.991 --> 00:10:38.970
비투비?

00:10:39.070 --> 00:10:40.807
제가 아는 트와이스?

00:10:40.907 --> 00:10:41.718
저도 알아요.

00:10:41.818 --> 00:10:45.961
이런 훌륭한, 혹시
또 팬들이 들으면.

00:10:46.061 --> 00:10:49.652
이런 훌륭한 가수 분들이
얘기하는 그 사랑과 이별을

00:10:49.752 --> 00:10:52.739
레퍼토리, 즉 스토리가
다 똑같지는 않죠.

00:10:52.839 --> 00:10:55.328
맨날 소개팅 하다 까였다는 얘기가
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

00:10:55.428 --> 00:10:57.912
다시 말하면 다 이야기는
달라요, 스토리.

00:10:58.012 --> 00:11:00.137
그러나 결국은 사랑과 이별이죠.

00:11:00.237 --> 00:11:01.129
마찬가지예요.

00:11:01.229 --> 00:11:04.309
고전에서 자연에 있다는 얘기는
자연에 살았다, 자연에 살았다

00:11:04.409 --> 00:11:06.108
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.

00:11:06.208 --> 00:11:09.074
시냇가에 혼자 앉아,
어디 있다는 얘기야?

00:11:09.174 --> 00:11:10.569
자연에 있다는 얘기야.

00:11:10.669 --> 00:11:13.954
바닷가에 혼자 앉아, 역시
자연에 있다는 얘기야.

00:11:14.054 --> 00:11:16.085
아까 초야우생, 초야에.

00:11:16.185 --> 00:11:18.299
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자연에 있다는 얘기고.

00:11:18.399 --> 00:11:21.601
심지어는 보리밥 푼나물 먹는다,
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
00:11:21.701 --> 00:11:23.357
자연에서 소박하다 이런 뜻이에요.

00:11:23.457 --> 00:11:26.372
낙시질하면서, 역시
자연에 있다는 얘기고.

00:11:26.472 --> 00:11:29.399
그다음에 막걸리 마시면서,
역시 자연에 있다는 뜻입니다.

00:11:29.499 --> 00:11:32.328
이런 게 바로 이제 자연
친화에 대한 내용이라면

00:11:32.428 --> 00:11:35.198
속세를 보실 때 여러분,
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

00:11:35.298 --> 00:11:37.623
속세는 무조건 부정적이에요,
절대 아닙니다.

00:11:37.723 --> 00:11:41.543
속세도 플러스의 요소가 있고,
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것도 있어요.

00:11:41.643 --> 00:11:45.925
속세 중에서도 임금에

대해서 충성심을 느낀다.

00:11:46.025 --> 00:11:48.940
임금에 대해서 충성심을 느낀다.

00:11:49.040 --> 00:11:52.153
그다음에 임금에 대해서
지조, 절개를 느낀다.

00:11:52.253 --> 00:11:55.776
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속세를
지향하지만 긍정적인 거죠.

00:11:55.876 --> 00:11:58.929
입신양명을 한다고 하는 것도
참 이게 긍정적 요소와

00:11:59.029 --> 00:12:00.670
부정적 요소가 다 있는데.

00:12:00.770 --> 00:12:03.923
남자로서 태어나서 크게
이름을 떨치고자 한다.

00:12:04.023 --> 00:12:06.095
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죠.

00:12:06.195 --> 00:12:09.803
다만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면
어떨 때 부정적이냐면

00:12:09.903 --> 00:12:12.468
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거 있죠?

00:12:12.568 --> 00:12:14.277
돈 많이 벌 거예요.

00:12:14.377 --> 00:12:17.785
공명을 즐긴다고 하는 거, 헛된
이름을 막 얻으려고 한다.

00:12:17.885 --> 00:12:19.643
이런 것들은 부정적이 되는 거죠.

00:12:19.743 --> 00:12:23.536
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야우생 할
때 초야는 초야라고 하는 게

00:12:23.636 --> 00:12:26.365
자연에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인
요소가 되는 거예요.

00:12:26.465 --> 00:12:30.351
그러면 여기까지 도산십이곡 역시
뭐 12개 작품 중에 두 개를

00:12:30.451 --> 00:12:34.388
살펴봤지만, 그래도 이 내용이 어떤
내용인지는 좀 짐작할 수 있겠죠.

00:12:34.488 --> 00:12:35.919

가볼게요.

00:12:36.019 --> 00:12:37.472

정철의 장진주사인데요.

00:12:37.572 --> 00:12:39.842

이건 수능 시험에 한 번
출제된 적 있었습시다.

00:12:39.942 --> 00:12:41.796

술을 권하는 노래, 이런 뜻입니다.

00:12:41.896 --> 00:12:42.923

가볼까요?

00:12:43.023 --> 00:12:44.427

한 잔 먹세그려.

00:12:44.527 --> 00:12:46.126

또 한 잔 먹세그려.

00:12:46.226 --> 00:12:48.190

그다음 곳 것거 산 노코.

00:12:48.290 --> 00:12:49.546

어렵다, 이런 거.

00:12:49.646 --> 00:12:54.073

꽃을 꺾어서 산은 뭐냐면
계산을 하면서 꽃 꺾어

00:12:54.173 --> 00:12:56.156

계산하면서 이런 뜻이에요.

00:12:56.256 --> 00:12:59.861

꽃 꺾어 산 노코는 꽃을 꺾어서
계산하면서 이런 뜻입니다.

00:12:59.961 --> 00:13:01.120

무슨 뜻이냐?

00:13:01.220 --> 00:13:06.057

한 잔 먹고 나서 하나 꺾어 두고
한 잔 먹고 나서 하나 꺾어 두고

00:13:06.157 --> 00:13:09.839

이러면서 102개네,
102잔 먹었다 이런 거죠.

00:13:09.939 --> 00:13:12.647

이게 바로 곳 것거 산
노코 이런 뜻이야.

00:13:12.747 --> 00:13:15.068

계산을 하면서 무진무진 먹세그려.

00:13:15.168 --> 00:13:18.175

A-A-B-A 구조
들어봤니, 애들아?

00:13:18.275 --> 00:13:21.287

A-A-B-A 구조가 되는 거고요.

00:13:21.387 --> 00:13:25.228
그다음에 풍류적인 모습입니다,
풍류적인 모습이에요.

00:13:25.328 --> 00:13:29.825
이 몸 주근 후에, 이 몸이 죽은
후에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

00:13:29.925 --> 00:13:33.230
주리혀 피여가나, 여기까지
괄호 닫아 볼게, 애들아.

00:13:33.330 --> 00:13:36.374
지게 위에 거적을 덮었다는
얘기는 지게 위에다 거적데기,

00:13:36.474 --> 00:13:39.569
돛자리 같은 거로 대충
덮어서 지게에 짊어져서

00:13:39.669 --> 00:13:43.262
주리혀 피여가나, 짹
줄라서 메고 가나.

00:13:43.362 --> 00:13:44.935
어디로 가는 거야?

00:13:45.035 --> 00:13:46.790
무덤가로 가는 거죠.

00:13:46.890 --> 00:13:49.591
보통 상여를 메는데 서민들이나
천민들 같은 경우는

00:13:49.691 --> 00:13:52.118
이렇게 그냥 지게에
메고 갈 거 아니에요.

00:13:52.218 --> 00:13:53.622
주리혀 피여가나.

00:13:53.722 --> 00:13:59.398
유소, 유소는 뭐냐면 유소
보장은 아주 좋은 상여예요.

00:13:59.498 --> 00:14:04.161
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러 네나,
만인이 울면서 가든지 간에.

00:14:04.261 --> 00:14:05.856
여기가 서로 대립이 되죠.

00:14:05.956 --> 00:14:07.329
이런 선택지 어떨까요, 여러분?

00:14:07.429 --> 00:14:11.097
대립적인 상황을 제시해서
죽음의 필연성을 부각한다.

00:14:11.197 --> 00:14:13.051
적절할까요, 적절하지 않을까요?

00:14:13.151 --> 00:14:14.534
적절합니다, 여러분.

00:14:14.634 --> 00:14:18.629
이렇게 아주 허름하게 지게
위에 거적을 덮어서 가든지

00:14:18.729 --> 00:14:26.330
아니면 유소 보장에, 즉 다시 말하면
상여에 만인이 울면서 가든지

00:14:26.430 --> 00:14:28.332
어떻든지 간에.

00:14:28.432 --> 00:14:29.780
그렇죠, 대립적 상황이죠?

00:14:29.880 --> 00:14:32.068
어떻든지 간에 죽는 건
똑같다는 얘기에요.

00:14:32.168 --> 00:14:33.714
그러니까 죽음의 필연성이 가능하죠.

00:14:33.814 --> 00:14:37.496
어옥새 속새, 억새풀, 속새풀,
덩가나무, 나무 이름입니다.

00:14:37.596 --> 00:14:40.723
백양 수폐 가기곳
가면, 가기만 하면.

00:14:40.823 --> 00:14:44.135
백양숲이라고 하는 게 백양숲이 우거진
그 무덤가를 뜻하는 거예요.

00:14:44.235 --> 00:14:49.877
결국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누른
해, 누런 해, 흰 달, 가는 비

00:14:49.977 --> 00:14:53.498
붉은 눈, 소소리 바람,
회오리 바람 불 때.

00:14:53.598 --> 00:14:56.937
이런 날씨가 막 변화하고 시간이
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

00:14:57.037 --> 00:15:00.458
넌 한잔 먹자 할고, 누가
한잔 먹자 하겠습니까?

00:15:00.558 --> 00:15:02.890
이미 죽었는데 누가 한잔 먹어요?

00:15:02.990 --> 00:15:05.119
죽고 나면 아무런
소용이 없는 거죠.

00:15:05.219 --> 00:15:09.567
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나면
무상감이라고 얘기합니다, 무상감.

00:15:09.667 --> 00:15:12.430
고등학교 때 이 무상감이라는
단어가 되게 어려워서요.

00:15:12.530 --> 00:15:13.920
무상감 어렵잖아요, 그렇죠?

00:15:14.020 --> 00:15:17.467
무상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
사전을 찾아봤거든, 선생님이.

00:15:17.567 --> 00:15:21.979
사전 찾아봤는데 인생에
대해서 텅없음을 느낌.

00:15:22.079 --> 00:15:23.208
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.

00:15:23.308 --> 00:15:24.992
사전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죠.

00:15:25.092 --> 00:15:26.191
텅없음을 느낌.

00:15:26.291 --> 00:15:28.151
사전이 저를 농락했다는
느낌이 들었어요.

00:15:28.251 --> 00:15:29.822
어렵죠, 텅없다라고 하는 게?

00:15:29.922 --> 00:15:33.266
그래서 텅없다를 찾아봤다,
텅없음이니까 텅없다를 찾아봤는데

00:15:33.366 --> 00:15:37.140
인생에 대해서 무상감을 느낌,
이렇게 되어 있어요.

00:15:37.240 --> 00:15:38.653
사전을 찢을 뻔했습니다.

00:15:38.753 --> 00:15:42.310
이 무상감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
좀 어려운 단어인데.

00:15:42.410 --> 00:15:43.521
뭐냐면 이런 거예요.

00:15:43.621 --> 00:15:45.186
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.

00:15:45.286 --> 00:15:48.430
여러분,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
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

00:15:48.530 --> 00:15:51.196

강남구청 이 자리에 오는 거죠.

00:15:51.296 --> 00:15:55.767

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
강남구청 인강이 있던 장소지.

00:15:55.867 --> 00:15:58.081

그때 수업 열심히 들었었는데.

00:15:58.181 --> 00:16:03.485

지금 뭐 60, 여러분 고1, 2,
3이면 67, 68, 69 이 정도.

00:16:03.585 --> 00:16:05.592

그럼 뭐하나 곧 있으면 죽는데.

00:16:05.692 --> 00:16:07.562

그때 김태동이라는 선생이 있었지.

00:16:07.662 --> 00:16:08.793

지금 뭐 하고 있을까?

00:16:08.893 --> 00:16:10.776

죽었겠구나, 이런 생각을
하는 거잖아요.

00:16:10.876 --> 00:16:12.748

다 지나고 보니까 허무하다.

00:16:12.848 --> 00:16:14.231

이게 바로 인생무상입니다.

00:16:14.331 --> 00:16:15.535

돈 많으면 뭐해요?

00:16:15.635 --> 00:16:16.823

결국 죽으면 끝이잖아요.

00:16:16.923 --> 00:16:18.673

그런데 있을 때 많으면 좋긴 하죠.

00:16:18.773 --> 00:16:22.707

그러나, 너무 세속적으로
설명했습니다만 아무튼

00:16:22.807 --> 00:16:28.135

여기 이 사람은 뭐냐면 죽으면
뭐해, 어차피 죽으면 뭐해.

00:16:28.235 --> 00:16:30.745

어차피 썩어 빠질 몸 술로 썩히자.

00:16:30.845 --> 00:16:33.691

술로 썩히자는 게 아니라 술
먹고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.

00:16:33.791 --> 00:16:38.750

하물며 무덤 위에 켜나비,
켄나비는 뭐냐면 잔나비라고 해서

00:16:38.850 --> 00:16:40.201
원숭이입니다, 여러분.

00:16:40.301 --> 00:16:44.826
이 잔나비라고 하는 것도 등장할
때마다 인생 무상감을 나타내요.

00:16:44.926 --> 00:16:47.673
사람은 다 사라지고
잔나비들만 남은 거거든요.

00:16:47.773 --> 00:16:50.440
잔나비 파람 불 제,
휘파람을 불 때.

00:16:50.540 --> 00:16:53.086
늑우친들 엇지리,
늑우친들 어땡겠습니까?

00:16:53.186 --> 00:16:54.539
늑우친들 어찌합니까?

00:16:54.639 --> 00:16:58.741
그때 늑우쳐도 아무런 소용이
없습니다, 이런 뜻입니다, 여러분.

00:16:58.841 --> 00:17:00.257
그러니까 뭐예요?

00:17:00.357 --> 00:17:05.054
현실 즐기자, 재미있게 놀자꾸나
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

00:17:05.154 --> 00:17:06.207
됐습니까?

00:17:06.307 --> 00:17:07.976
문제 한번 가볼까요?

00:17:08.076 --> 00:17:09.506
지문 소화제부터 또 있네요.

00:17:09.606 --> 00:17:12.697
(나)에서 자연의 영원 불변성을
의미하는 시어 두 개 써라.

00:17:12.797 --> 00:17:14.868
청산과 유수겠죠.

00:17:14.968 --> 00:17:18.468
술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해소하려는
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다.

00:17:18.568 --> 00:17:19.412
맞습니다.

00:17:19.512 --> 00:17:20.910
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

00:17:21.010 --> 00:17:23.112
어차피 다 죽으면 그만인데 말이야.

00:17:23.212 --> 00:17:26.241

술로써, 술을 먹는 이유가
제시되어 있는 거야.

00:17:26.341 --> 00:17:27.805

무상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.

00:17:27.905 --> 00:17:30.482

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일 수도 있죠.

00:17:30.582 --> 00:17:31.683

갑니다.

00:17:31.783 --> 00:17:32.765
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7:32.865 --> 00:17:34.954

1번, (가)를 바탕으로
(나), (다)를 감상한 것으로

00:17:35.054 --> 00:17:37.545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했는데.

00:17:37.645 --> 00:17:39.365

사실적 이해 문제예요.

00:17:39.465 --> 00:17:42.873

(가)라고 하는 것을 아예
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고

00:17:42.973 --> 00:17:44.428

사실적 이해입니다.

00:17:44.528 --> 00:17:48.133

어지러운 정계를 벗어나서.

00:17:48.233 --> 00:17:51.848

강호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
마음을 노래하고 있다.

00:17:51.948 --> 00:17:55.584

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
노래하고 있는 모습은

00:17:55.684 --> 00:17:58.815

(나)에서 초야우생이
잘 나타나 있다.

00:17:58.915 --> 00:18:01.904

(나) 작품에 임금 은혜에
감사하는 내용이 없죠.

00:18:02.004 --> 00:18:03.656

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.

00:18:03.756 --> 00:18:07.313

여기에서 초야우생은 자연에 묻혀 사는
어리석은 사람, 이런 뜻입니다.

00:18:07.413 --> 00:18:11.717
자연만 생각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
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.

00:18:11.817 --> 00:18:14.725
그러니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
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

00:18:14.825 --> 00:18:16.344
여기 (나) 작품에 없었죠.

00:18:16.444 --> 00:18:18.256
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에요.

00:18:18.356 --> 00:18:21.304
2번 보면 자연 속에 파묻혀 아름다운
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은

00:18:21.404 --> 00:18:23.009
천석고황을 통해 드러난다.

00:18:23.109 --> 00:18:25.088
천석고황이라는 단어 뜻을 아셔야죠.

00:18:25.188 --> 00:18:27.091
자연을 사랑하는 병.

00:18:27.191 --> 00:18:29.377
3번,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
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는

00:18:29.477 --> 00:18:31.181
(나)의 만고상청.

00:18:31.281 --> 00:18:32.851
만고상청 단어 뜻을 알아야죠.

00:18:32.951 --> 00:18:35.314
오랜 세월 동안 푸르겠다
이런 거니까요.

00:18:35.414 --> 00:18:38.454
낭만적이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
살 것을 권유하는 모습은

00:18:38.554 --> 00:18:40.870
(다)의 초장을 통해
구체적으로 나타난다.

00:18:40.970 --> 00:18:41.751
뭔데?

00:18:41.851 --> 00:18:43.636
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.

00:18:43.736 --> 00:18:46.912
꽃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,
이렇게 얘기했으니까

00:18:47.012 --> 00:18:48.872
풍류를 즐기는 삶입니다.

00:18:48.972 --> 00:18:52.451

화자의 호방한 성격은 죽으면
덧없어질 세상을 술로 즐기려는

00:18:52.551 --> 00:18:55.222

태도를 보이고 있는 (다)의
증장에서 나타나 있다.

00:18:55.322 --> 00:18:56.828

이거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.

00:18:56.928 --> 00:18:59.398

(가)의 맨 마지막 밑에서
두 번째 줄을 보면

00:18:59.498 --> 00:19:02.864

장진주사에 잘 드러나는데, 이
작품은 정철의 호방한 성격이

00:19:02.964 --> 00:19:07.952

잘 드러나는 권주가에 해당한다라고
얘기했으니까 적절한 거죠.

00:19:08.052 --> 00:19:10.068

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?

00:19:10.168 --> 00:19:13.508

(나)와 (다)의 공통점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9:13.608 --> 00:19:21.390

1번, 대구법을 사용해서 주제를
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0:19:21.490 --> 00:19:28.519

(가) 작품을 보면, 여러분
이건 대구법이, 여기 나왔군요.

00:19:28.619 --> 00:19:32.981

두 번째 11수에 보니까 11곡에
보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

00:19:33.081 --> 00:19:35.685

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
그치지 아니한가.

00:19:35.785 --> 00:19:37.777

위아래 대구법이 쓰였습니다.

00:19:37.877 --> 00:19:39.795

(가)에서는 대구법이 있네요.

00:19:39.895 --> 00:19:43.163

(나)에서는 한잔 먹세그려 또
한잔, 이건 대구법이 아닙니다.

00:19:43.263 --> 00:19:45.593

대구법이 없죠.

00:19:45.693 --> 00:19:49.527

(나)에서는 대구법이
없어요, 됐어요?

00:19:49.627 --> 00:19:52.128
대상을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.

00:19:52.228 --> 00:19:53.268
풍자 없습니다, 희화화 없어요.

00:19:53.368 --> 00:19:55.320
풍자가 여러분 뭘예요?

00:19:55.420 --> 00:19:59.533
풍자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.

00:19:59.633 --> 00:20:00.748
해학은 뭘죠?

00:20:00.848 --> 00:20:07.832
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거니까 풍자는
뭐냐면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고,

00:20:07.932 --> 00:20:10.185
해학은 따뜻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.

00:20:10.285 --> 00:20:11.798
연민의 정서를 갖고 있는 거죠.

00:20:11.898 --> 00:20:14.485
둘 다 웃음을 유발하긴 하지만.

00:20:14.585 --> 00:20:17.607
제가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요?

00:20:17.707 --> 00:20:22.058
중학교 때 버스 타거나
이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.

00:20:22.158 --> 00:20:25.429
뒷자리 보면 이렇게 좀
높은 의자 있죠?

00:20:25.529 --> 00:20:27.141
버스 바퀴 위에 높은
의자 있잖아요.

00:20:27.241 --> 00:20:29.452
거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

00:20:29.552 --> 00:20:31.664
굴곡이 이렇게 왔다
갔다 하는 곳이었어요.

00:20:31.764 --> 00:20:33.564
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죠.

00:20:33.664 --> 00:20:35.483
저는 중학생이니까
일어서서 있어야 되니까.

00:20:35.583 --> 00:20:37.817

할머니 앉아계시는데 할머니가
꾸벅꾸벅 졸고 계세요.

00:20:37.917 --> 00:20:40.556

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가
내려가는데 회전을 하잖아요.

00:20:40.656 --> 00:20:44.043

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
또르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.

00:20:44.143 --> 00:20:45.210

굴러떨어져요.

00:20:45.310 --> 00:20:49.985

어떻게 해, 할머니 괜찮으세요
하고 이렇게 할머니를 앉혀드렸죠.

00:20:50.085 --> 00:20:52.136

그리고 나서 버스를
타고 가고 있는데,

00:20:52.236 --> 00:20:54.286

상황이 웃으면 안
되는 상황이잖아요.

00:20:54.386 --> 00:20:55.445

웃으면 이상하잖아요.

00:20:55.545 --> 00:20:57.344

그런데 웃음이 나더라고요,
막 웃음이 나요.

00:20:57.444 --> 00:21:02.258

웃음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
어떡하지 이려고, 할머니 계시고

00:21:02.358 --> 00:21:04.535

얼굴 피하려고 앞을 보고
이렇게 ㅋㅋ 이려고 있었는데

00:21:04.635 --> 00:21:07.968

앞에 의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
다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.

00:21:08.068 --> 00:21:09.780

질문, 해학이야, 풍자야?

00:21:09.880 --> 00:21:10.820

해학이죠.

00:21:10.920 --> 00:21:12.973

할머니 정신 차리세요,
꼭 잡고 가셔야죠.

00:21:13.073 --> 00:21:14.451

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

00:21:14.551 --> 00:21:16.024

이런 게 바로 해학입니다.

00:21:16.124 --> 00:21:17.939

여기는 풍자 없고요,
희화화도 없어요.

00:21:18.039 --> 00:21:21.518

생활 속에 어휘를 통해
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.

00:21:21.618 --> 00:21:22.617

(가)가 틀렸어요.

00:21:22.717 --> 00:21:24.330

(가)는 생활 속의
어휘가 아니잖아요.

00:21:24.430 --> 00:21:26.586

(가)는 한자어들
되게 많이 나옵니다.

00:21:26.686 --> 00:21:28.287

천석고향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.

00:21:28.387 --> 00:21:32.233

그다음에 (나) 작품은
가능할 것 같습니다.

00:21:32.333 --> 00:21:34.612

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
이런 건 가능하고요.

00:21:34.712 --> 00:21:37.039

문장 구조의 반복을
통해 운율을 형성한다.

00:21:37.139 --> 00:21:39.319

이게 통사 구조 반복인데, 애들아.

00:21:39.419 --> 00:21:42.117

(나)에서 아까 대구법
쓰였던 거 보였죠?

00:21:42.217 --> 00:21:44.972

대구법 칭산은 어찌하여
만고에 푸르르며.

00:21:45.072 --> 00:21:46.997

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
그치지 아니한가.

00:21:47.097 --> 00:21:48.771

이거 문장 구조 반복이죠.

00:21:48.871 --> 00:21:51.269

그다음에 한잔 먹세그려
또 한잔 먹세그려.

00:21:51.369 --> 00:21:52.934

이건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.

00:21:53.034 --> 00:21:54.383

이거 한번 볼까요?

00:21:54.483 --> 00:21:55.393

이거 설명한 것 같다.

00:21:55.493 --> 00:21:58.684

통사 구조 반복하고 대구법 중에
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냐면

00:21:58.784 --> 00:22:00.951

통사 구조 반복이 더
넓은 개념이에요.

00:22:01.051 --> 00:22:03.529

여기 보고 여기 보면
이게 (가)예요.

00:22:03.629 --> 00:22:04.694

(가)'입니다.

00:22:04.794 --> 00:22:07.226

이거는 통사 구조 반복 가능하고요.

00:22:07.326 --> 00:22:08.798

대구법도 가능하죠.

00:22:08.898 --> 00:22:12.609

그러나 (가)가 여기 나왔는데,
(가)'가 여기 밑에 나왔어요.

00:22:12.709 --> 00:22:13.551

이건 뭐예요?

00:22:13.651 --> 00:22:15.758

통사 구조 반복도 가능하고요.

00:22:15.858 --> 00:22:18.687

통사 구조 반복 가능한데,
대구법은 안 됩니다, 여러분.

00:22:18.787 --> 00:22:19.998

대구법은 안 됩니다.

00:22:20.098 --> 00:22:22.135

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.

00:22:22.235 --> 00:22:25.639

그다음 마지막, 자연물을 의인화하여
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.

00:22:25.739 --> 00:22:27.502

자연물 의인화하고 있는 거.

00:22:27.602 --> 00:22:31.397

마지막에 (다) 작품은 가능하네요.

00:22:31.497 --> 00:22:35.864

마지막에 잔나비가 휘파람 분다
그랬으니까 이거는 (다)죠.

00:22:35.964 --> 00:22:39.136

제가 지금 전부 다 (가),

(나)를 이렇게 했구나.

00:22:39.236 --> 00:22:40.520
전부 다 (나), (다)입니다, 여러분.

00:22:40.620 --> 00:22:42.251
(나), (다)입니다.

00:22:42.351 --> 00:22:46.893
당연히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
아셨겠지만, 제가 바보 같네요.

00:22:46.993 --> 00:22:48.912
(다)에서 해당되는 겁니다.

00:22:49.012 --> 00:22:50.475
(나)에서는 없어요.

00:22:50.575 --> 00:22:53.456
정답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22:53.556 --> 00:22:58.680
보기와 같이 수정했을 때 수정하기
위한 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

00:22:58.780 --> 00:23:01.884
얘기는 바뀐 부분이 아닌 걸
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.

00:23:01.984 --> 00:23:04.303
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.

00:23:04.403 --> 00:23:06.082
이 몸 주근 뒤에 뉘
한잔 먹자 할고.

00:23:06.182 --> 00:23:08.732
하물며 무덤 속에서
뉘우친들 엇지리.

00:23:08.832 --> 00:23:10.427
너무 간단하게 나왔죠.

00:23:10.527 --> 00:23:13.623
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
초장은 의도를 간략하게

00:23:13.723 --> 00:23:15.395
전달하되 반복법을
그대로 사용하였다.

00:23:15.495 --> 00:23:16.835
의도는 그대로죠.

00:23:16.935 --> 00:23:21.379
한잔 먹자는 의도는 똑같은데,
간단하게 A-A-B-A 구조

00:23:21.479 --> 00:23:23.822
전체 다 나오지 않고 한잔
먹세그려 한잔 먹세그려

00:23:23.922 --> 00:23:26.397

이 정도 나왔으니까
1번 적절하고요.

00:23:26.497 --> 00:23:31.778

그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은
중장은 죽은 후의 상황이

00:23:31.878 --> 00:23:34.778

덧없음을 드러낸다는 의미로
유지되고 간략하게 줄였다.

00:23:34.878 --> 00:23:37.836

죽은 뒤에 누가 한잔
먹자 할고라고 했으니까

00:23:37.936 --> 00:23:41.401

죽은 후의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
거니까 이것도 역시 적절하죠.

00:23:41.501 --> 00:23:43.342

간략하게 줄였습니다.

00:23:43.442 --> 00:23:44.607

3번을 볼까요?

00:23:44.707 --> 00:23:47.914

중장의 첫 어절은 음수율을 고려하여
글자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.

00:23:48.014 --> 00:23:51.523

하물며 앞에, 하물며 똑같죠.

00:23:51.623 --> 00:23:53.760

중장은 시어의 일부분을 교체했나요?

00:23:53.860 --> 00:23:55.114

교체했어요.

00:23:55.214 --> 00:23:57.528

작품의 분위기 전환이라고
하는 게 틀렸죠.

00:23:57.628 --> 00:24:00.465

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,
인생무상이라고 하는.

00:24:00.565 --> 00:24:03.156

술로써 해소하자는 주제
의식은 그대로 유지했다.

00:24:03.256 --> 00:24:05.289
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24:05.389 --> 00:24:10.438

그다음에 실전 다지기 두 번째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4:10.538 --> 00:24:14.785

첫 번째는 백석의 모닥불이고요.

00:24:14.885 --> 00:24:16.623

안도현의 모닥불이라는
작품도 있거든요.

00:24:16.723 --> 00:24:20.506

그다음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
하는 황지우의 시입니다.

00:24:20.606 --> 00:24:21.643

유명한 시죠.

00:24:21.743 --> 00:24:23.142

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.

00:24:23.242 --> 00:24:25.691

(가)와 (나)의
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?

00:24:25.791 --> 00:24:27.548

공통점 찾기 문제가 나왔고.

00:24:27.648 --> 00:24:28.946

2번을 볼게요.

00:24:29.046 --> 00:24:31.196

2번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
(가)를 감상해 바라.

00:24:31.296 --> 00:24:37.334

백석이 주로 창작 활동을 했던
1930년대는 일본이 한국인의 문화와

00:24:37.434 --> 00:24:40.037

전통을 유린, 말살하려
했던 일제 강점기입니다.

00:24:40.137 --> 00:24:41.927

당연히 아시죠, 여러분?

00:24:42.027 --> 00:24:43.745

이런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

00:24:43.845 --> 00:24:46.560

백석은 공동체적 삶을
회복하려고 한다.

00:24:46.660 --> 00:24:47.645

밀줄 쳐 볼게요.

00:24:47.745 --> 00:24:50.094

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고
하는 시적 경향을 드러낸다.

00:24:50.194 --> 00:24:51.605

그런 작품들 되게 많아요.

00:24:51.705 --> 00:24:58.485

여우난골족이라고 해서 명절 때
고향 할머니, 할아버지 집 모여서

00:24:58.585 --> 00:25:02.151

친척들이다 모여 어울리고 있는
그런 흥겨운 모습도 나옵니다.

00:25:02.251 --> 00:25:03.937

시적 경향을 드러내게 되는데.

00:25:04.037 --> 00:25:08.150

이때 백석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
모습은 가족과 이웃 간의

00:25:08.250 --> 00:25:12.266

유대가 있는 화합의 공간으로써 그의
시에 절절하게 투영되어 있다.

00:25:12.366 --> 00:25:14.672

그러면 (가) 작품에는
고향의 모습도 있고,

00:25:14.772 --> 00:25:19.047

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
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25:19.147 --> 00:25:20.363

3번을 볼까요?

00:25:20.463 --> 00:25:22.190

3번은 보기는 (나)에
대한 설명인데.

00:25:22.290 --> 00:25:25.169

이를 바탕으로 ㉠~㉢을
보기와 같이 해석했을 때

00:25:25.269 --> 00:25:27.014

올바른 내용끼리 묶어라.

00:25:27.114 --> 00:25:28.233

보기를 볼게요.

00:25:28.333 --> 00:25:31.486

어느 시대나 사람들에게 미치는
사회적 힘이 존재하며,

00:25:31.586 --> 00:25:34.433

이러한 사회적 힘은 육체적,
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구속한다.

00:25:34.533 --> 00:25:38.232

그럼 (나) 작품이 정신적, 육체적
뭔가 하나는 구속된다는 얘기잖아요.

00:25:38.332 --> 00:25:43.058

이 시에서는 사회적 힘이
애국가를 수단으로 해서

00:25:43.158 --> 00:25:46.149

일상 공간인 영화관까지 스며들며
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.

00:25:46.249 --> 00:25:47.460

무슨 얘기일까요?

00:25:47.560 --> 00:25:51.050
애국가라고 하는 것이 애국심을
의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.

00:25:51.150 --> 00:25:54.582
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는 거고,
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

00:25:54.682 --> 00:25:55.901
쓰인다는 거죠.

00:25:56.001 --> 00:25:59.014
그래서 보기 2에서 올바른 내용으로
해석한 것을 한번 찾아 봐라

00:25:59.114 --> 00:26:01.450
이런 뜻입니다, ㉠,
㉡, ㉢, ㉣이.

00:26:01.550 --> 00:26:04.413
가볼게요, 모닥불입니다.

00:26:04.513 --> 00:26:10.694
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
갓신창도 개니빠디도.

00:26:10.794 --> 00:26:11.816
개니빠디 뭘니까?

00:26:11.916 --> 00:26:13.463
개의 이빨도.

00:26:13.563 --> 00:26:18.160
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
머리카락도 형겔 조각도

00:26:18.260 --> 00:26:23.897
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
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입니다.

00:26:23.997 --> 00:26:26.208
모닥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

00:26:26.308 --> 00:26:31.444
다 들어가 있는 거고, 닭의 깃이라고
하는 건 닭의 날개 이런 건데.

00:26:31.544 --> 00:26:34.916
이런 단어 뜻은 몰라도
상관없는데, 핵심은 뭘니까?

00:26:35.016 --> 00:26:37.078
모든 것이 타고 있는 거죠.

00:26:37.178 --> 00:26:40.043
그런데 여기 타고 있는 것들을
보니까 금불이나 이런 거 없죠.

00:26:40.143 --> 00:26:43.527

다이야 반지도 타고 있고, 금불이도 타고 있고 이런 거 없죠.

00:26:43.627 --> 00:26:46.445

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 타고 있는 게 바로 모닥불입니다.

00:26:46.545 --> 00:26:50.567

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 함께 타고 있는 거죠.

00:26:50.667 --> 00:26:53.069

모여서 타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1연이에요.

00:26:53.169 --> 00:26:57.619

그러면 2연을 보면 재당도 초시도.

00:26:57.719 --> 00:27:02.271

재당, 초시라고 하면 벼슬입니다, 집안의 어른이고.

00:27:02.371 --> 00:27:07.819

초시는 좀 벼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초시고요.

00:27:07.919 --> 00:27:08.806

잘 보세요.

00:27:08.906 --> 00:27:10.180

이게 대립적입니다.

00:27:10.280 --> 00:27:14.640

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, 이게 가문의 짱이야, 늙은이.

00:27:14.740 --> 00:27:16.839

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,

00:27:16.939 --> 00:27:18.623

더부살이, 더불어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.

00:27:18.723 --> 00:27:19.787

이게 대조가 되죠.

00:27:19.887 --> 00:27:21.710

새 사위도 갓사돈도, 이것도.

00:27:21.810 --> 00:27:23.423

나그네도 주인도.

00:27:23.523 --> 00:27:24.682

전부 다 대립적인 관계예요.

00:27:24.782 --> 00:27:27.568

안 어울 것 같은 존재라 대립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.

00:27:27.668 --> 00:27:30.207

할아버지도 손자도

붓장사도 땀쟁이도.

00:27:30.307 --> 00:27:34.220
대립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서로
안 어울릴 것 같은 존재들도,

00:27:34.320 --> 00:27:35.957
이런 뜻입니다.

00:27:36.057 --> 00:27:40.913
그다음에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
모닥불을 쪼인다고 했습니다.

00:27:41.013 --> 00:27:44.421
그러면 첫 번째 모닥불에 타는
게 되게 여러 가지였고,

00:27:44.521 --> 00:27:47.600
두 번째는 뭐냐면 모닥불을
쪼고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

00:27:47.700 --> 00:27:52.521
서로 대립적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
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

00:27:52.621 --> 00:27:56.227
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
모닥불을 쪼고 있어요.

00:27:56.327 --> 00:27:57.614
뭔데, 그게?

00:27:57.714 --> 00:28:00.876
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.

00:28:00.976 --> 00:28:06.441
모닥불은 어려서 우리
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

00:28:06.541 --> 00:28:12.834
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발이가
된 슬픈 역사가 있다.

00:28:12.934 --> 00:28:17.221
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라고
하면 다리가 이렇게 잘린

00:28:17.321 --> 00:28:20.414
그런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
다리가 좀 잘리신 것 같죠.

00:28:20.514 --> 00:28:22.757
모닥불에 다리가 잘리신 것 같은데.

00:28:22.857 --> 00:28:25.224
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.

00:28:25.324 --> 00:28:29.807
어떤 역사인지는 모르겠으나
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.

00:28:29.907 --> 00:28:33.293

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
시를 읽고 나서 옛날에

00:28:33.393 --> 00:28:36.744

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
저희 할아버지랑 똑같아요.

00:28:36.844 --> 00:28:40.249

저희 할아버지도 되게
재미있으셨던 분이예요.

00:28:40.349 --> 00:28:44.270

재미있으셨던 분인데 다리가
발목, 무릎 밑이 없으세요.

00:28:44.370 --> 00:28:48.829

이게 뭐냐면 피난을 내려오실 때
가족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

00:28:48.929 --> 00:28:50.083

같이 내려오잖아요.

00:28:50.183 --> 00:28:52.776

2박 3일 동안 먹을 게 없었대요.

00:28:52.876 --> 00:28:55.033

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라
먹을 수 없었대요.

00:28:55.133 --> 00:28:57.957

식량도 이렇게 써서 오는데
불을 피워야 되는데

00:28:58.057 --> 00:29:00.283

불을 피울 데가 없잖아요.

00:29:00.383 --> 00:29:04.311

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계속
내려온 거예요, 추운데.

00:29:04.411 --> 00:29:08.343

그러다가 이제 동굴에 어떻게
동굴 찾아다니셨나 보죠.

00:29:08.443 --> 00:29:11.667

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밥도 지어
먹고 이렇게 잠을 좀 청하자

00:29:11.767 --> 00:29:14.841

그래서 밥을 지어 먹고 마을
사람들이 잠을 잤답니다.

00:29:14.941 --> 00:29:17.705

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가
깜짝 놀란 게 뭐냐면

00:29:17.805 --> 00:29:23.262

당신의 발이 모닥불이 숯불만
남아 있는 그 위에

00:29:23.362 --> 00:29:24.668
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.

00:29:24.768 --> 00:29:27.459
추우니까 밤새 이렇게 정신을
잃은 상태에서 기어서

00:29:27.559 --> 00:29:29.331
거기다 다리 올려 놓으신 거예요.

00:29:29.431 --> 00:29:32.671
그 자리에서 이제 다리가
다 타들어간 거죠.

00:29:32.771 --> 00:29:33.824
어떻게 해?

00:29:33.924 --> 00:29:34.891
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.

00:29:34.991 --> 00:29:37.490
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
다리를 자르고 달구지에 태워서

00:29:37.590 --> 00:29:38.605
이렇게 잤답니다.

00:29:38.705 --> 00:29:40.732
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
되게 무서워했는데.

00:29:40.832 --> 00:29:42.378
무섭잖아요.

00:29:42.478 --> 00:29:44.937
처음에 이렇게 무서운데, 나중에
할아버지 얘기 듣고 나서

00:29:45.037 --> 00:29:46.219
되게 슬프다.

00:29:46.319 --> 00:29:50.448
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
한 개인에게 이런 비극을

00:29:50.548 --> 00:29:52.789
이렇게 가져다 주는구나
이런 생각이 들었죠.

00:29:52.889 --> 00:29:54.496
그거 보고 나서 그렇게
알고 있었는데

00:29:54.596 --> 00:29:56.983
나중에 선생님 대학교
때인가 이 시를 봤는데

00:29:57.083 --> 00:29:58.169
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.

00:29:58.269 --> 00:29:59.457

똑같은 이야기잖아요.

00:29:59.557 --> 00:30:03.740

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
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

00:30:03.840 --> 00:30:05.700

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.

00:30:05.800 --> 00:30:07.455

아마 그 역사가 담겨 있나 봐요.

00:30:07.555 --> 00:30:09.000

이런 뜻입니다.

00:30:09.100 --> 00:30:11.123

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인데.

00:30:11.223 --> 00:30:12.282

황지우 시인인데요.

00:30:12.382 --> 00:30:17.108

이 황지우 시인도 1960년대,
7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해서

00:30:17.208 --> 00:30:19.193

항거했던 시인입니다.

00:30:19.293 --> 00:30:22.490

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
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.

00:30:22.590 --> 00:30:23.478

질문할까요?

00:30:23.578 --> 00:30:25.369

여러분, 만약에 영화관에 갔어요.

00:30:25.469 --> 00:30:26.336

어벤져스 영화 봅니다.

00:30:26.436 --> 00:30:27.499

애국가가 나옵니다.

00:30:27.599 --> 00:30:29.183

그러면 애국가 여러분, 경청하겠니?

00:30:29.283 --> 00:30:30.316

안 하죠.

00:30:30.416 --> 00:30:33.175

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애국가
동해물과 하늘에 막 화면 나오고

00:30:33.275 --> 00:30:37.985

이럴 때 너무나 뛰어난 조국이야,
우리에게 어벤져스가 있어서.

00:30:38.085 --> 00:30:39.875

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
거 아니에요, 그렇지요?

00:30:39.975 --> 00:30:43.678

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것은 바로
쓰인 표현법이 반어법이에요.

00:30:43.778 --> 00:30:45.611

그런 영화관에서조차,

00:30:45.711 --> 00:30:48.912

물론 애국가 부르고 이게 잘못됐다는
게 아니라 영화관이잖아요.

00:30:49.012 --> 00:30:52.760

자유로워야 되는 영화관에서조차
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것은

00:30:52.860 --> 00:30:56.235

그 사회가 폐쇄적이고,
억압적이고, 획일적이라고 하는 걸

00:30:56.335 --> 00:30:58.207

짐작할 수 있는 거죠.

00:30:58.307 --> 00:30:59.522

삼천리 화려강산입니다.

00:30:59.622 --> 00:31:01.863

우리나라를 삼천리
화려강산이라고 표현했어요.

00:31:01.963 --> 00:31:03.340

이것도 역시 반어법이죠.

00:31:03.440 --> 00:31:05.458

왜? 자유가 없잖아요, 현실에서는.

00:31:05.558 --> 00:31:06.474

자유가 없잖아요.

00:31:06.574 --> 00:31:10.207

현실에서 자유가 없는데, 영화관에서조차
애국가를 강요받는 거고.

00:31:10.307 --> 00:31:11.819

애국가 불려야 돼.

00:31:11.919 --> 00:31:14.698

거기 보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
대한 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.

00:31:14.798 --> 00:31:17.745

대한 뉴스라고 해서 국가에서
정부에서 하는 것들을

00:31:17.845 --> 00:31:19.998

딱 광고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.

00:31:20.098 --> 00:31:22.322

그런 것들이 이제 강요되는 거죠.

00:31:22.422 --> 00:31:23.837

그래서 애국가를 경청했던 거고.

00:31:23.937 --> 00:31:25.803

삼천리 화려 강산의.

00:31:25.903 --> 00:31:28.554

여러분 그다음 장면부터는 뭐냐면

00:31:28.654 --> 00:31:31.490

여러분, 애국가 장면 혹시 TV

화면에서 본 적 있습니까?

00:31:31.590 --> 00:31:33.233

애국가 보면 반드시

나오는 장면들 있죠?

00:31:33.333 --> 00:31:34.209

뭐니까?

00:31:34.309 --> 00:31:36.047

일출 장면 반드시 나오죠, 또?

00:31:36.147 --> 00:31:40.116

독도 항상 나오고, 그렇죠?

00:31:40.216 --> 00:31:44.257

심지어는 요새 홍명보 선수 옛날

4강 진출했던 그 장면도 나오던데.

00:31:44.357 --> 00:31:47.661

그다음에 또 반드시 나오는

장면이 이런 거 있잖아요.

00:31:47.761 --> 00:31:49.911

철새들이 이렇게 이륙하는

장면들 있잖아.

00:31:50.011 --> 00:31:51.506

그게 여기 중첩됩니다.

00:31:51.606 --> 00:31:52.452

이런 것도 있어요.

00:31:52.552 --> 00:31:53.877

반도체 옮기는 장면도 나오구요.

00:31:53.977 --> 00:31:55.494

용광로 불붙는 것도 나오고

이런 것들 나오죠.

00:31:55.594 --> 00:31:59.978

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영화관에서

화면을 봤어, 애국가 듣고 있어,

00:32:00.078 --> 00:32:02.898

영화관 화면에 애국가 그

화면이 펼쳐지잖아.

00:32:02.998 --> 00:32:04.533

그거랑 이게 중첩되게 나타난 거야.

00:32:04.633 --> 00:32:05.728

볼게.

00:32:05.828 --> 00:32:08.475

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
이루며, 무리를 이루며

00:32:08.575 --> 00:32:10.124

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.

00:32:10.224 --> 00:32:12.291

흰 새 떼가 어떤 존재인가?

00:32:12.391 --> 00:32:16.437

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
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.

00:32:16.537 --> 00:32:18.193

냉소적인 시선이죠.

00:32:18.293 --> 00:32:23.062

그러니까 게네 입장에서는 우리 화면,
게네를 관찰하고 있는 우리가,

00:32:23.162 --> 00:32:26.681

영화관 안에서 영화 보러 온
우리가 어떤 모습처럼 보였을까?

00:32:26.781 --> 00:32:28.889

재네 봐, 저렇게 자유가 없나 봐.

00:32:28.989 --> 00:32:31.584

영화관에서조차 저렇게 하고 있는
거 봐, 너무 어이없지 않니?

00:32:31.684 --> 00:32:33.343

이런 거예요.

00:32:33.443 --> 00:32:37.827

그러니까 자기들끼리
낄낄대면서 깔깔대면서.

00:32:37.927 --> 00:32:42.099

냉소적인 표현이죠, 냉소적이다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32:42.199 --> 00:32:43.987

일열 이열 삼열 횡대로.

00:32:44.087 --> 00:32:46.881

그런데 안타깝게도 게네도
어떤 모습이나면 무의식적으로

00:32:46.981 --> 00:32:50.164

일열 이열 삼열 횡대라고 하는 군사
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.

00:32:50.264 --> 00:32:52.913

아무튼 그래도 자기들의 세상을
이 세상에 떼어 떼고.

00:32:53.013 --> 00:32:55.244
이 세상 부정적이죠.

00:32:55.344 --> 00:32:57.082
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.

00:32:57.182 --> 00:32:58.993
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
게 이상향입니다.

00:32:59.093 --> 00:33:01.606
이 세상 밖이라고 하는 게
바로 뭐냐면 이상향이죠.

00:33:01.706 --> 00:33:03.446
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.

00:33:03.546 --> 00:33:04.601
누가?

00:33:04.701 --> 00:33:06.769
여기 나오는 새들이.

00:33:06.869 --> 00:33:08.805
그럼 새들은 바로 어떤 존재들이야?

00:33:08.905 --> 00:33:15.279
화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,
이상적인 존재가 바로 이제 새겠죠.

00:33:15.379 --> 00:33:19.106
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
바로 새일 겁니다.

00:33:19.206 --> 00:33:22.248
우리도 우리들끼리
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.

00:33:22.348 --> 00:33:24.138
끼리끼리 웃고 있는 거잖아요.

00:33:24.238 --> 00:33:25.547
이것도 역시 냉소적 표현입니다.

00:33:25.647 --> 00:33:29.777
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
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

00:33:29.877 --> 00:33:33.979
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
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

00:33:34.079 --> 00:33:35.997
이 세상 밖이 바로 뭐죠?

00:33:36.097 --> 00:33:37.718
아까 얘기했던 이상향입니다.

00:33:37.818 --> 00:33:40.070
어디론가 날아갔으면
막 소망하고 있어.

00:33:40.170 --> 00:33:41.599

저 새들 봐.

00:33:41.699 --> 00:33:44.883

저 새들처럼 우리도 날아갔으면
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.

00:33:44.983 --> 00:33:49.896

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
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

00:33:49.996 --> 00:33:52.764

각각 자리에 앉는다.

00:33:52.864 --> 00:33:54.364

주저앉는다.

00:33:54.464 --> 00:33:55.505

보세요.

00:33:55.605 --> 00:33:57.220

각각 자리에 앉는다,
어떤 모습이에요?

00:33:57.320 --> 00:33:58.871

좌절하고 있는 거죠.

00:33:58.971 --> 00:34:00.034

주저앉는다 뭐예요?

00:34:00.134 --> 00:34:02.912

절망하고 있습니다, 절망적이에요.

00:34:03.012 --> 00:34:04.310

왜 절망적일까요?

00:34:04.410 --> 00:34:05.999

더 이상 벗어날 수가
없잖아요, 여기에서.

00:34:06.099 --> 00:34:07.900

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절망적이죠.

00:34:08.000 --> 00:34:10.076

각각 자리에 주저
앉아 버리는 거고.

00:34:10.176 --> 00:34:11.173

어쩔 수 없어요.

00:34:11.273 --> 00:34:13.613

소망했지만 결국 소망이
좌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

00:34:13.713 --> 00:34:16.909

지금 현재 모습이 바로 뭐냐면
부정적인 현실이거든요.

00:34:17.009 --> 00:34:19.515

그러니까 당연히 좌절하면서

끝나는 거죠.

00:34:19.615 --> 00:34:23.374

여기 이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
바로 뭐냐면 현실에 좌절했다.

00:34:23.474 --> 00:34:24.922

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.

00:34:25.022 --> 00:34:29.971

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
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.

00:34:30.071 --> 00:34:33.515

애국가 장면, 애국가 노래
구절이 중첩이 되어 있죠?

00:34:33.615 --> 00:34:36.337

봐봐, 이렇게 계속 길이 보전하세.

00:34:36.437 --> 00:34:39.822

이렇게 억압적이고 독재의
현실을 계속 길이 보전하세.

00:34:39.922 --> 00:34:42.639

얼마나 안타까워, 그렇죠?

00:34:42.739 --> 00:34:44.396

이렇게 계속 있어야 돼?

00:34:44.496 --> 00:34:46.392

계속 영화 볼 때마다 이렇게
애국가 들어야 돼?

00:34:46.492 --> 00:34:50.563

이런 생각이 드니까 각각 자리에
앉으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34:50.663 --> 00:34:53.054

절망적입니다.

00:34:53.154 --> 00:34:55.126

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?

00:34:55.226 --> 00:34:56.859

문제 보겠습니다.

00:34:56.959 --> 00:34:58.837

(가)의 1, 2연에서 느껴지는.

00:34:58.937 --> 00:35:00.049

(가)의 1, 2연이 뭐죠?

00:35:00.149 --> 00:35:04.168

주된 정서는 정겨움일까,
쓸쓸함일까?

00:35:04.268 --> 00:35:05.383

정겨움입니다.

00:35:05.483 --> 00:35:06.711

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잖아요.

00:35:06.811 --> 00:35:08.342

그러니까 정겨움이라고 봐야죠.

00:35:08.442 --> 00:35:12.323

(나)의 괄호는 화자의 처지와
대조되는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.

00:35:12.423 --> 00:35:13.937

흰 새 떼들이겠죠.

00:35:14.037 --> 00:35:16.348

(나)의 화자는 시적 상황을
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.

00:35:16.448 --> 00:35:18.679

냉소적 태도 바라보고
있다, 적절합니다.

00:35:18.779 --> 00:35:21.020

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
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.

00:35:21.120 --> 00:35:21.984

냉소적입니다.

00:35:22.084 --> 00:35:24.597

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말이야.

00:35:24.697 --> 00:35:25.764

그러지 못하는 거죠.

00:35:25.864 --> 00:35:28.834

옛날에는 9시 뉴스를 뭐라고
했었냐면,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?

00:35:28.934 --> 00:35:30.968

9시 뉴스를 땡전뉴스라고 했었어요.

00:35:31.068 --> 00:35:35.779

왜 그리냐면 띠띠띠뽕 전두환
대통령께서는 어디를 방문하시고.

00:35:35.879 --> 00:35:38.388

띠띠띠뽕 전두환 대통령께서는.

00:35:38.488 --> 00:35:43.236

그래서 계속 이제 정치의,
독재 시절이니깐요.

00:35:43.336 --> 00:35:46.973

독재 시절에 자기들의 업적이나
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

00:35:47.073 --> 00:35:51.625

그런 시대였다는 거야, 이 새들도
세상을 뜨는구나라고 하는 이 시에서.

00:35:51.725 --> 00:35:53.373

가보겠습니다.

00:35:53.473 --> 00:35:55.503

문제 한번 가볼게요.

00:35:55.603 --> 00:36:01.837

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6:01.937 --> 00:36:08.613

(가)와 (나) 작품을 보니까 1번, 반어적
표현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.

00:36:08.713 --> 00:36:11.318

이거는 (나) 작품에 해당되는
설명입니다, 그렇지요?

00:36:11.418 --> 00:36:16.594

반복과 열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면서
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0:36:16.694 --> 00:36:19.316

반복, 열거.

00:36:19.416 --> 00:36:21.535

이거는 (가) 작품은
해당되겠네요, 그렇지요?

00:36:21.635 --> 00:36:23.917

반복과 열거를 통해 운율을
형성하고 있다고 하면

00:36:24.017 --> 00:36:28.129

(가)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~도,
~도, ~도 열거되어 있죠.

00:36:28.229 --> 00:36:33.771

그다음에 (나)에서는
반복, 열거 없고요.

00:36:33.871 --> 00:36:35.958

시적 화자의 행위가
변화하는 과정에 따라.

00:36:36.058 --> 00:36:37.266

행위가 시적 화자.

00:36:37.366 --> 00:36:39.301

(가)는 안 되죠, 화자의
행위가 없으니까요.

00:36:39.401 --> 00:36:43.108

(나)에서는, 이거는 (나)
작품은 가능하겠네요.

00:36:43.208 --> 00:36:44.779

주제가 형성되는 게.

00:36:44.879 --> 00:36:48.165

(나) 작품은 애국가를 경청하기
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

00:36:48.265 --> 00:36:50.291

그러다가 다시 자리에
앉는 걸 통해서

00:36:50.391 --> 00:36:52.462

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
거니까 맞죠.

00:36:52.562 --> 00:36:56.119

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
경험하는 부정적인 현실이

00:36:56.219 --> 00:36:57.829

드러나 있다고 했는데.

00:36:57.929 --> 00:37:00.769

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.

00:37:00.869 --> 00:37:02.966

이건 좀 어렵습니다.

00:37:03.066 --> 00:37:06.182

이건 (가) 작품에서는
뭘 보냐면 애들아.

00:37:06.282 --> 00:37:11.392

슬픈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
할아버지 개인이 겪는 것이 아니라

00:37:11.492 --> 00:37:15.142

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겪었던,
집단적으로 경험했던,

00:37:15.242 --> 00:37:18.213

사회 집단이 경험했던 부적절한
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37:18.313 --> 00:37:19.985

슬픈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.

00:37:20.085 --> 00:37:24.685

일제 강점기에 억압받고 핍박받으면서
혼자 고아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.

00:37:24.785 --> 00:37:27.726

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
바로 슬픈 역사의 모습이라면

00:37:27.826 --> 00:37:30.222

(나)에서는 뭐냐면
독재 시대잖아요.

00:37:30.322 --> 00:37:35.420

애국가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
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

00:37:35.520 --> 00:37:39.804

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7:39.904 --> 00:37:42.975

배경이 되는 경관을
서두에 제시한 다음에

00:37:43.075 --> 00:37:44.723
이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
뒤에 나타난다.

00:37:44.823 --> 00:37:46.197
선경후정인데요.

00:37:46.297 --> 00:37:49.152
(가)와 (나) 작품 모두
선경후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

00:37:49.252 --> 00:37:52.724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7:52.824 --> 00:37:56.241
2번, 보기를 바탕으로 (가)를 감상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37:56.341 --> 00:37:58.108
아까 얘기했던 겁니다.

00:37:58.208 --> 00:38:01.644
뭐냐면 시대적 영향, 공통체적
삶을 회복하고자 한다.

00:38:01.744 --> 00:38:02.593
이런 내용이 나왔고.

00:38:02.693 --> 00:38:06.004
고향의 모습은 가족과 이웃 간의
유대가 있는 화합의 공간이라고

00:38:06.104 --> 00:38:09.139
얘기했으니까 그런 내용을
바탕으로 해서 감상해 봐라.

00:38:09.239 --> 00:38:12.672
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
골라 봐라 이런 겁니다.

00:38:12.772 --> 00:38:14.330
1번을 볼까요?

00:38:14.430 --> 00:38:18.806
어미아비 없는 서러운
아이는 누굴까요?

00:38:18.906 --> 00:38:20.420
할아버지인 것 같죠.

00:38:20.520 --> 00:38:23.086
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을
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.

00:38:23.186 --> 00:38:26.260
왜? 할아버지가 어미아비
없는 서러운 아이로.

00:38:26.360 --> 00:38:27.920

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.

00:38:28.020 --> 00:38:30.294

우리 민족의 모습을
대표하는 인물이겠죠.

00:38:30.394 --> 00:38:33.799

할아버지만 겪은 것은, 그
할아버지 개인의 문제일 텐데

00:38:33.899 --> 00:38:36.094

여기에서는 슬픈 역사라고 했으니까

00:38:36.194 --> 00:38:37.853

할아버지 개인의
문제라고 할 수 없죠.

00:38:37.953 --> 00:38:40.392

모닥불을 보며 떠올리는
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는

00:38:40.492 --> 00:38:42.903

우리 민족의 비극적
역사로 확대된다.

00:38:43.003 --> 00:38:44.799

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네요.

00:38:44.899 --> 00:38:47.096

모든 존재를 평등하게
포용하는 모닥불.

00:38:47.196 --> 00:38:49.323

왜? 누구나 와서 쥘
수 있는 거니까요.

00:38:49.423 --> 00:38:52.205

화합과 평등을 지향하는
공동체적 삶을 노래하고 있다.

00:38:52.305 --> 00:38:53.767

적절하겠죠.

00:38:53.867 --> 00:38:57.774

새끼오리, 소똥, 개니빠디
등의 어휘는 작가가 인식한

00:38:57.874 --> 00:39:00.843

고향의 모습을 환기시키기 위해
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00:39:00.943 --> 00:39:07.182

왜?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서
두 번째 줄의 모습이 뭐냐면

00:39:07.282 --> 00:39:10.840

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
백석은 공동체적 삶을

00:39:10.940 --> 00:39:14.497

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,
이때 백석이 태어나고 자란

00:39:14.597 --> 00:39:18.243

고향의 모습은 가족과 이웃
간의 유대가 있다고 했으니까

00:39:18.343 --> 00:39:23.343

여기에서 나오는 새끼오리, 소똥,
개니빠디 이런 건 뭐냐면

00:39:23.443 --> 00:39:26.040

작가가 생각하는
긍정적인 공간이잖아요.

00:39:26.140 --> 00:39:30.071

그 긍정적인 공간이 바로
고향이니까 적절하겠죠, 4번이.

00:39:30.171 --> 00:39:33.262

5번을 보면 2연에서 제시된
비현실적인 존재들은.

00:39:33.362 --> 00:39:36.236

비현실적인 존재가 있어요?

00:39:36.336 --> 00:39:40.633

2연 재당 초시, 여기는 비현실적인
존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틀렸네요.

00:39:40.733 --> 00:39:44.114

어린 아이들 또 뭐니?

00:39:44.214 --> 00:39:48.074

갓사둔 주인네 할아버지
손자, 뭐 이런 거니까.

00:39:48.174 --> 00:39:51.285

사람 간 유대를 회복한
이상적 세계.

00:39:51.385 --> 00:39:55.774

존재들은 차별을 극복하고 사람들
간의 유대를 회복했다.

00:39:55.874 --> 00:39:58.116

유대를 회복하거나 이런
것들은 가능한데,

00:39:58.216 --> 00:40:01.029

여기에서는 현실적 존재라고
하는 게 맞겠죠.

00:40:01.129 --> 00:40:02.590

비현실적인 존재라고
얘기할 수 없죠.

00:40:02.690 --> 00:40:05.472

여기 나오는 사람들, 주변에
관찰하는 사람들일 테니까

00:40:05.572 --> 00:40:07.929

비현실적인 존재라고
보기가 어렵잖아요.

00:40:08.029 --> 00:40:10.933

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
정답이 되겠죠.

00:40:11.033 --> 00:40:11.967

됐습니까?

00:40:12.067 --> 00:40:13.608

3번 볼게요.

00:40:13.708 --> 00:40:15.763

보기 1은 (나)에 대한 설명이다.

00:40:15.863 --> 00:40:18.237

이를 바탕으로 ㉠~㉢을 보기
2와 같이 해석했을 때

00:40:18.337 --> 00:40:22.311

올바른 내용끼리 바르게 묶인
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0:22.411 --> 00:40:26.454

보기 2를 보시면 영화관까지
스며들었다고 얘기했죠.

00:40:26.554 --> 00:40:27.970

그러면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.

00:40:28.070 --> 00:40:29.681

㉠ 볼까요?

00:40:29.781 --> 00:40:32.130

사회적 힘이 구속하는 대로
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

00:40:32.230 --> 00:40:33.059

시대 상황이 나타난다.

00:40:33.159 --> 00:40:33.855

맞죠.

00:40:33.955 --> 00:40:36.411

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,
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

00:40:36.511 --> 00:40:40.099

독재 정권의 시기, 독재의
시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.

00:40:40.199 --> 00:40:43.919

사회적 힘이 구속하는 상황과 이에
대항하려는 화자, 이게 틀렸습니다.

00:40:44.019 --> 00:40:46.305

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
있지 않습니다.

00:40:46.405 --> 00:40:48.098
저항하는 모습이 아니에요.

00:40:48.198 --> 00:40:50.485
자신들을 구속하려고 하는
사회적인 힘의 실체를

00:40:50.585 --> 00:40:52.687
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
모습이 나타나 있다.

00:40:52.787 --> 00:40:54.314
구속하려고 하는 사회적 힘의
실체를 인지하지 못하고

00:40:54.414 --> 00:40:55.636
있는 우리의 모습.

00:40:55.736 --> 00:40:57.439
구속하려고 하는 모습이
나타나 있다고 하면

00:40:57.539 --> 00:40:59.317
애국가를 강요하고 있는 거니까

00:40:59.417 --> 00:41:02.440
이거는 뭐 힘의 실체를 인지하지
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.

00:41:02.540 --> 00:41:06.006
화자는 사회적 힘의 구속에서 벗어나지
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.

00:41:06.106 --> 00:41:08.341
마지막 부분이 좌절이라는
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

00:41:08.441 --> 00:41:12.008
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
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1:12.108 --> 00:41:13.141
됐나요?

00:41:13.241 --> 00:41:16.182
여러분, 여기까지 실전 문제, 실전
다지기 1, 2를 마쳤습니다.

00:41:16.282 --> 00:41:19.465
내용 자체가 제가
생각할 때는 문제가

00:41:19.565 --> 00:41:21.718
그렇게 어려운 문제는
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

00:41:21.818 --> 00:41:25.246
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,
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

00:41:25.346 --> 00:41:28.126

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
이제 문제 풀면서

00:41:28.226 --> 00:41:31.358

먼저 풀고 나서 의문 나는
거라든가 이런 것들은

00:41:31.458 --> 00:41:33.895

메모를 좀 해두셨다가
제가 수업시간에 설명하면

00:41:33.995 --> 00:41:36.937

그거로 이해하시면 되고, 혹시
제가 설명 못 한 부분이 있다면

00:41:37.037 --> 00:41:40.878

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
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.

00:41:40.978 --> 00:41:44.914

말이 기본 편이지만, 기본 편
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,

00:41:45.014 --> 00:41:49.890

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,
다시 한번 꼭 복습해주시고요.

00:41:49.990 --> 00:41:51.785

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00:41:51.885 --> 00:41:52.358

여러분, 여기까지 할게요.

00:41:52.458 --> 00:41:54.245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